

현대적 자유교육론의 한계와 그 대안 -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교육론을 중심으로 -

전문

권미영 성균관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론』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 지성에 빛을 비추는 신적 조명으로서 ‘내적 교사(magister interior)’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참된 지식은 외적 전달자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작용과 본질적으로 관련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언어와 인간교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가르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수 패러독스는 해소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

1) 언어의 한계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론(De Magistro)』을 통해 언어가 참된 지식을 직접 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표지(sign)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실제 나무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언어는 단지 외적 표지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참된 이해는 학습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의 설명 자체가 곧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 교육이 전제해 왔던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교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나는 언어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겠지만, 언어가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언어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도록 사물 자체를 내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더러 사물 자체를 찾으라고 권유할 따름이다. ... 단어로는 우리가 단어 외에는 못배운다. 아니 단어의 소리와 진동밖에 못배운다. 그 이유는 기호가 아닌 것은 단어가 될 수 없으며, 이미 귀에 들린 단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알기까지는 그것이 단어인지조차 모른다 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물이 인식되어야 비로소 단어에 대한 인식도 성립된다(De mag, 11, 36).

말하자면 언어만으로는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식은 언어로 구성할 수 없으며

학습자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언어는 현실을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하지만 질문을 유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2) 인간교사의 한계

아우구스티누스는 획일적 암기와 반복 훈련 중심과 교사 중심 교육 역시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참된 앎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사건이다. 인간 교사는 외적으로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을 뿐이며,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일은 학습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에 도달하도록 돕는 매개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말을 듣는 사람은 비록 본인도 저 내밀하고 단순한 눈으로 저것들을 보고 있을지라도 내 말을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관상(觀想)하여 보는 것이다. 내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참된 것을 통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배운다면 내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내면에서 펼쳐보이시어 그에게 드러난 사물들을 통해서 배운다(De mag, 12, 40).

지식의 획득은 학생의 '밖'에서 주어지는 교사의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신적조명론에서 학생은 교사가 하는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종의 내적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지식을 형성하는 존재로 간주된다(방진하, 2012: 88).

이때, 교사의 임무는 언어교수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활동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지식을 획득하는 주체가 바로 학습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교수행위(teaching)는 내부에서 전개되는 학습활동(learning)을 지원하는 일을 임무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인간도 실제로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교수-학습의 최종 모형은 “우리의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이다. 그는 조명설(illumination theory)이라는 독특한 인식론을 통하여 플라톤주의자들의 인식론이 보여 준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내면의 교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식의 획득 과정을 충실하게 논증하였다(주영흠, 2007: 91-92, 206).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데아는 조명을 통하여 지금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어두움을 밝혀주는 조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교사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인식의 근거를 ‘빛’의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사고를 통해 지식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참된 이해와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궁극적 근거는 인간 외부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간 내면을 비추는 신적 조명(divine illumination)에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단순히 외부 세계의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앎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비추어지는 진리의 빛인 내적교사(inner teacher)를 통해 참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면 교사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제자들에게 전달한다고 여기는 학문 그 자체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이 이해되고 간직된다고 자신하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호기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배워오라고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교사들이 덕성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모든 학문들을 언어로 설명할 때,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과연 있는 힘을 다해서 저 내면의 진리를 들여다보면서 교사들이 한 말이 참말인지를 눈앞에 곱곰이 헤아리는 것일까? 그 때 비로소 제자들은 배움을 얻는 것이고, 교사들이 한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내면에서 발견한다면 교사들을 칭송을 할 텐데, 그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교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칭송하기 보다는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으로 칭송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De mag, 14, 45).

여기서 내적 교사는 단순한 양심이나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진리를 비추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존재론적 사건으로 이해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는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며, 단순히 기억에 의해 되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밝은 조명을 통하여 자신을 현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신의 조명은 우리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내면의 교사가 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가르침에 주목하기만 하면 진리는 항상 우리의 인식 대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몫은 의지를 가지고 진리에 주목하는 일일 뿐이다(주영흠, 2007: 206).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통해 나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권면을 받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내면으로 들어가서 당시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내 영혼의 눈으로 내 영혼의 눈과 내 지성 위에 있는 불변하는 빛을 보았습니다. (중략) 진리는

아는 자는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아는 자는 영원을 압니다(Conf, VII, 10).

인간이 신적 조명에 의해 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플라톤의 학습 회상설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희랍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플라톤의 회상설은 영혼선재설을 바탕으로 지식이 이미 학습자의 내면에 선형적으로 있는데 망각되어 있다가 다시 회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 조명은 인간 안에 이미 있는 지식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에 의하여 영원불변의 진리를 현재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정현숙, 2008: 154).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수 패러독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수 패러독스는 교육의 본질을 둘러싼 가장 근원적인 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의 교육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가 지식을 가르치고 학생은 그것을 배우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통념 속에서 교사는 이해의 원인이며 학생의 학습은 교사의 교수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론』에서 이러한 상식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다. 그의 질문은 단순하다. "과연 인간 교사는 타인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교육의 가능성 자체를 뒤흔드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지만, 언어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다. 언어는 단지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signum)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교사가 '정의', '사랑', '선', 혹은 '삼각형'이라는 단어를 말한다고 해서 학생의 정신 속에 곧바로 그 의미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교사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지시하는 의미를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의 발화와 학생의 이해 사이에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는 말하지만 이해를 생산하지 못하며, 학생은 이해하지만 그 이해는 교사의 언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수의 역설이 발생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론(De Magistro)』에서 인간 교사가 언어를 통해 설명하고 질문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마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참된 배움은 외적 언어의 전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 안에 현존하는 '내적 교사(Magister Interior)'의 조명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교육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만일 모든 참된 앎이 내적 교사의 조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현실 교육 현장에서 인간 교사, 곧 '외적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 교사는

단순히 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학습자가 내적 교사를 만나도록 돕는 매개자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 친구들, 제자들, 인생의 멘토들, 책과 성경 등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아의 성찰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간다.

주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얼마나 큰 공훈로 사람들에게 그 겸손의 길을 보여 주셨는지를 내게 알려 주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교만으로 가득 찬 어떤 사람을 통하여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몇몇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 책들 가운데서 다음의 요한복음 1:1-5와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말씀의 사상과 지지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Conf. VII. 9. 13).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성은 절망 속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기쁨이고 그 기쁨의 핵심은 타인들과 함께 나눔에 있었다. 『고백록』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서로 얹혀 있다. 빅토리누스, 안토니오스, 황제 특사, 사도 바울, 어머니, 알리피우스 등의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전달되고 상호 교류, 공감되는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 자신 뿐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의 영적인 통찰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심승환, 2017). 예를 들어, 밀라노에서 만난 암브로시우스는 그의 인식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부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내용을 통해 감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는 암브로시우스의 수사학적 능력과 웅변술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해석 방식과 인격적 태도를 통해 점차 자신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이 사람은 아버지처럼 나를 받아 주었고 주교다운 친절함을 가지고 내가 해외로 와서 살게 된 것을 신경 써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그를 진리의 교사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친절한 사람으로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Conf. V. 13. 23).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친절(humanitas)’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암브로시우스는 단순히 교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매우 열심히 들었는데, 설교를 들을 때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런 동기에서가 아니라 그의 유창함이 그 명성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지 혹은 그것만 못한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내용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파우스투스의 설교와 견줄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파우스투스는 마니교의 속임수 가운데 헤매고 있었고, 암브로시우스는 구원을 가장 바르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고, 나는 그런 사악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차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암브로시우스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려하지 않고 단지 그가 말하는 방식만을 배우려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의 말과 함께 내가 무시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과 그 말이 전달하는 내용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훌륭한 언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마음을 열자 그가 말한 진실이 그의 언변과 함께 동시에 그러나 서서히 내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Conf. V. 13. 23-24).

암브로시우스는 외적 권위를 통해 진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닫혀 있던 마음을 열어 내적 교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심리적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내면의 진리와 대면하도록 돕는 ‘사랑의 안내자’이자 ‘은총의 매개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교사의 말은 학습자가 지식을 얻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과정은 외적 교사와 내적 교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외적 교사는 진리를 직접 주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안의 진리와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인격적 삶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였고, 이는 결국 밀라노 정원에서 “집어서 읽으라(Tolle, lege)”는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결정적 순간으로 이어졌다. 이때 외적 교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습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사건으로 전환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니교적 편견과 문자주의적 성경 이해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점차 진리를 향한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한 진리는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암브로시우스는 진리를 전달한 교사라기 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이 내적교사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끈 외적교사로 이해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후 자신의 제자였던 알리피우스(Alypius)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교육적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리피우스는 오랜 시간 아우구스티누스와

학문적·영적 여정을 함께했던 제자이자 동반자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영향을 깊이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알리피우스를 자신의 사상에 종속시키거나 자신의 권위를 통해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대화와 성찰, 그리고 공동의 탐구를 통해 알리피우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실제로 『고백록』에 나타난 알리피우스의 회심 과정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직접적인 설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알리피우스 자신의 내적 각성과 결단을 통해 완성된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로부터 경험했던 교육적 관계를 다시 자신의 제자에게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서의 배움은 그 깨달음은 나눔으로서의 가르침으로 연결되며, 자아의 성숙과 타인의 성숙이 연결되어 진행된다. 수사학 교사로서 돈벌이와 명예를 위해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은 자신의 제자들이 출세만을 위해 수단적으로 배우는 모습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연결되었다. 알리피우스의 예에서 교사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제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마음과 혀를 뜨거운 숯불이 되게"(Conf. VI. 7. 12) 만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자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배움과 가르침의 모습이 일반적인 가르침과 배움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성령이 그 과정에 개입된다는 점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난다. 위의 바로 이것이 일반적 가르침 및 배움과 구별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한 부분이다. 성령은 깨닫게 하고 쓰게(말하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서 깨달음을 촉구한 성령은 제자인 알리피우스에게 말하게 도왔고 다시금 제자인 알리피우스가 깨닫도록 도왔다. 이 성령의 역사는 교사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성찰의 의지, 제자에 대한 사랑의 의지, 제자 알리피우스의 순수한 열린 마음의 의지와 맞물려 영적 깨달음과 변화로 이어졌던 것이다(심승환, 2017: 69).

교육은 지식을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 내면 안에 잠재된 진리 인식의 가능성이 깨어나는 과정이다. 따라서 외적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를 자기 자신 안에 현존하는 진리, 곧 내적 교사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다. 참된 교육은 바로 이 내면의 각성과 존재의 변형 속에서 완성된다.

4. 의의 및 한계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교사론은 인간 교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교사의 역할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교육철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참된 이해와 진리의 인식은 궁극적으로 내적교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적교사의 교육적 기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적교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적교사는 필수적

인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삶에서도 확인된다. 젊은 시절 오랫동안 진리를 탐구하였으나 확신에 이르지 못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Ambrosius)와의 만남을 통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암브로시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진리를 직접 주입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설교와 삶의 모범, 그리고 성경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에 성찰과 탐구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열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깨달음은 내적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끈 교육적 계기는 외적교사인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마련되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교사론과 신적조명론의 교육적 의미는 교육의 본질을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해의 형성 과정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있다. 그는 진리 인식의 궁극적 근거를 학습자 내면에 위치시킴으로써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사를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이해를 촉진하는 안내자로 재정립하였다. 또한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전능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교육담론에서 간과되어 온 마음의 문제를 교육의 중심 과제로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교육철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교사론과 신적 조명론은 인식의 궁극적 근거를 인간 교사의 교수 행위가 아니라 학습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와의 만남에 둠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교육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론에서 교사의 언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궁극적 인식의 원천을 인간 교사가 아닌 내적교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교육의 관계적 사회적 차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이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은 제공하지만,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중에 오답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셋째, 학습자의 이해의 결정적 원인이 인간의 교육행위가 아니라 신적 조명이라면 교육의 실천적 효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인식의 궁극적 원인을 교육의 외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적극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교육이 가능성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끝으로 신적 조명론과 내적교사론은 보편적 교육이론으로 기능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교육의 전능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현대 교육철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주영흠(2007).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방진하(2012). 「아우구스티누스 신적조명론의 교육학적 시사: 자기지식과 교사의 역할」, 『교육사상연구』, 26(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85-110.
- 심승환(2017).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통한 만남과 나눔의 영성교육 고찰」, 『교육철학연구』, 39(4), 한국교육철학학회, 63-86.
- 정현숙(2008).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 본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6, 한국종교교육학회, 147-163.
- Augustinus. Confessiones. 조동선 역(2022). 고백록. 서울: 익투스.
- Augustinus. De magistro. 성염 역(2019). 교사론. 칠곡: 분도출판사.